땅끝 해남, 올해 사계절 축제 열린다

공룡대축제 시작으로 계절별 축제 이어져
"관광객들 계속 찾아오는 계기 만들 것"

오시아노 뮤직콘서트

땅끝 해남군의 2023년은 사계절 축제로 물든다.

해남군은 지역 관광자원을 적극 활용한 계절별 대표 축제를 개최, 코로나19 이후 관광활성화를 빠르게 이끌어낼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우선, 봄에는 공룡박물관에서 '땅끝 해남 어린이 공룡대축제'(가칭)를 개최한다.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공룡대축제는 어린이날 등이 포함된 5월, 공룡화석지의 다양한 콘텐츠와 연결해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마련된다.

여름에는 송지면 '호해변축제'와 화원면 '오시아노 썸머뮤직축제'이 여름철 특화된 축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가을에는 삼산면 두륜산 도립공원 일원에서 군 대표 축제인 '해남미남(味南)축제'가 열린다.

마지막으로 겨울에는 한반도가 시작하는 곳, 땅끝마을에서 해넘이·해맞이 축제가 개최된다.

계절 대표 축제 외에도 지역 주민들이 만들어가는 다양한 형태의 지역축제도 활발히 개최된다.

오는 3월 산이면 문화체육진흥회에서 추진하는 땅끝매화축제를 시작으로 계곡면의 흑석산 철쭉제, 현산면 수국축제 및 팜파스축제, 옥천면 무궁화축제, 북평면 용줄다리기 행사, 화원면 오시아노 해넘이 축제, 북일면 오소재 해맞이 행사 등 주민주도형 지역 축제가 연이어 열린다.

또 우리나라 대표 걷기 여행길인 해남 달마고도와 남파랑길 걷기 여행 활성화를 위해 2월부터 365일 걷기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봄이 시작되는 3월에는 달마고도 힐링축제도 개최할 예정이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코로나 위기로 주춤했던 축제들을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라며 "해남만의 특화된 사계절 축제를 정착시켜 관광객들이 계속해서 찾아오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해남=기동취재본부

장흥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조기선발 운영

장흥군공설운동장서 체력검정 실시…이후 서류 검토 후 최종 결정

장흥군은 지난 11일 산불예방을 위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선발을 위해 체력검정을 장흥군공설운동장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응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체력검정은 등짐펌프(12kg)를 메고 운동장 5바퀴를 통과하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최종 합격자는 체력검정에서 통과한 지원자 중 서류 검토 후 결정된다.

군은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로 예년보다 앞당겨 본격적인 산불전문예방진화대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으로 산불 발생에 신속히 대응 뿐만 아니라 산림 내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 및 홍보에도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흥=김도영 기자

진도군, 행안부 선정 정보공개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

최우수 등급…군정 운영 투명성

진도군이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2년도 정보공개종합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달성하고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정보공개제도 운용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59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외부전문기관 위탁평가를 통한 심사를 거쳐 전반적인 운영 수준·실적을 점검하고 평가했다.

주요 평가내용은 사전정보공개, 문서 원문 정보 공개, 정보공개 청구처리, 고객관리 등 4개 분야 10개 지표로 시행했다.

특히 진도군은 사전적 정보공개와 정보공개 청구 관리 분야에서 지속적인 개선으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진도군 민원봉사과 관계자는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은 군정 운영의 투명함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알권리와 투명한 행정 추진을 위해 정보공개 운영 수준 향상에 더욱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진도=조상용 기자

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99명 올해 첫 입국

9개 읍면 44개 어가 배치…인력난 해소 기대

완도군은 13일 농어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처음 외국인 계절근로자 99명이 입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필리핀 딸락주 출신으로, 마약 검사와 고용주 교육을 실시한 뒤 완도읍과 금일읍, 노화읍 등 9개 읍면 44개 어가에 배치됐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어번기 고질적인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개월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완도군은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한 결과 올해 상반기 전남도내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1000여명을 배정받았다.

또 필리핀 딸락주 등과 업무협약을 통해 우수 인력을 확보했다.

지난해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361명이 입국해 완도군 11개 읍면에 배치됐다.

완도군은 농어촌 인력 수요와 시기에 따라 계절근로자를 순차적으로 입국시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과 결혼 이민자 가족 초청 확대, 외국인 유학생 계절근로 도입 등을 통해 농어가와 서비스 산업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완도=기동취재본부

강진에 포도 전문가 떴다…샤인머스켓 교육 실시

녹색문화대학 포도과정 개설 후 첫 교육, 품질 향상 기대

강진군은 지난 11일 관내 포도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고품질 포도 생산 교육을 실시했다. 농업기술센터는 올해 녹색문화대학에 포도과정을 개설하고, 첫 교육으로 전 농수산대교수 이영철 박사를 초빙해 실시했다.

최근 빚어지고 있는 규격 이하 포도 유통 및 출하량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 현상에 대비해, 고품질 재배 이론과 현장 전정 교육을 병행 진행했다.

강사로 나선 이영철 박사는 금년 포도 산업 발전 방향 및 포도 전반적인 재배 기술 등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고 당도 높은 포도 과실 생산을 위한 기술 전수에 집중했다. 특히 농업기술센터 포도 실증포에서 전정 방법을 직접 시연하는 참여식 교육 방법을 통해 교육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군에서는 30농가(10.3ha) 규모로 샤인머스켓 포도를 주 품종으로 재배하고 있으며 전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1시군 1특화작목 육성

사업에 참여해 포도 품질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방위 지원하고 있다.

군농업기술센터 정동완 소장은 "무엇보다 포도 농가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달성할 수 있도록 꾸준한 교육과 행정 지원에 나서고 있다"면서 "강진의 지역적 장점을 극대화하고 재배 농업인들의 기술 향상과 인식개선을 통해 고품질 포도가 생산될 수 있도록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진=김영일 기자